



미 증시,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4 거래일 만에 반등

미국 증시 리뷰

25 일(월) 미국 증시는 미 연방정부 섣다운 우려, 고유가 지속, 미국채 10 년물 금리 4.5% 돌파에 하락 출발했으나, 빅테크 중심으로 저가매수세 유입, 아마존의 AI 투자 결정 소식에 힘입어 4 거래일만에 반등. (다우 +0.13%, S&P500 +0.4%, 나스닥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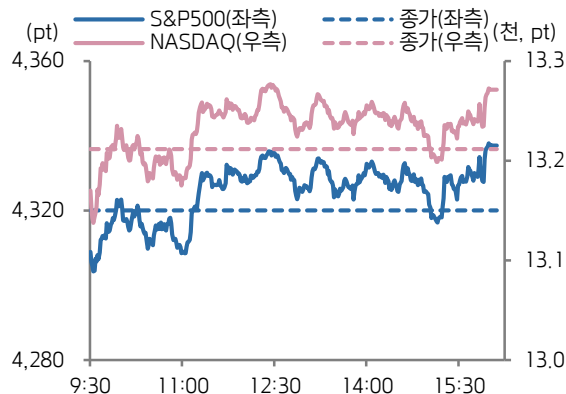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난 FOMC 에서 연준위원들이 대부분 내년에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것을 시사했으며 이는 시장에서 생각해 온 시간보다 좀 더 긴 시간이라고 언급.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높게 유지될 위험이 제일 큰 위험"이라며 "목표치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미 의회가 내년 정부 예산 관련 법안 12 개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 정부는 10 월 1 일부터 섣다운에 돌입. 트럼프 전대통령을 중심으로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12 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없는 상황. 일각에서는 2013 년과 2018~2019 년 정부 폐쇄에 따른 경제성장을 타격은 0.1~0.3%포인트였다고 분석. 또한, 섣다운 돌입 시 정부 노동자 80 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 줄어드는 소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

9 월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는 85.7(예상 85.2, 전월 85.8) 기록하며 전월대비 하락.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89.0 에서 88.7 로하락했으나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82.7 에서 82.9 로 소폭 개선. 8 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는 -0.16(예상 0.10, 전월 0.07), 9 월 달러스연은 제조업 활동지수는 -17.1(예상 -14.0, 전월 -17.2) 기록하며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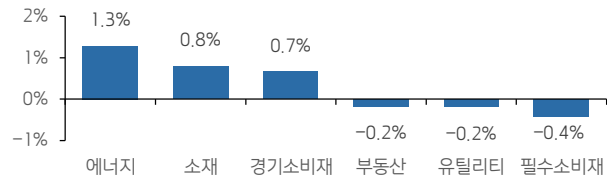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1.3%), 소재(+0.8%), 경기소비재(+0.7%) 강세, 필수소비재(-0.4%), 유틸리티(-0.2%), 부동산(-0.2%) 약세. 미국 작가조합 WGA 는 현지시간 24 일 사용자 단체인 영화-TV 제작자연합(AMPTP)와 150 일 만에 잠정 합의에 도달, 이에 AMPTP 에속해있는 디즈니(-0.3%), 파라마운트(0.16%),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3.96%) 등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하락 전환 마감. 아마존(1.67%)이 생성형 AI 개발 스타트업인 앤트로픽에 최대 40 억달러(약 5 조 3500 억 원) 투자 발표, MS·구글에 이어 AI 에 본격 투자. 앤트로픽은 개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로 옮기게 되며, 아마존이 챗봇이나 기타 앱을 구동하는데 쓰이는 생성형 AI 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는데도 참여할 예정.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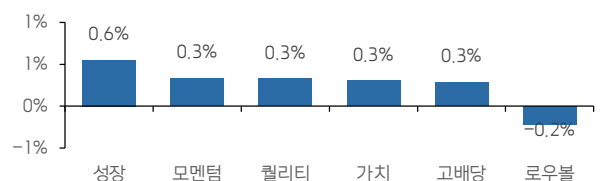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95.76	-0.49%	USD/KRW	1,336.35	-0.02%
코스피 200	331.58	-0.13%	달러 지수	105.95	+0.35%
코스닥	839.17	-2.12%	EUR/USD	1.06	+0.01%
코스닥 150	1,320.86	-2.14%	USD/CNH	7.32	+0%
S&P500	4,337.44	+0.4%	USD/JPY	148.81	-0.05%
NASDAQ	13,271.32	+0.45%	채권시장		
다우	34,006.88	+0.13%	국고채 3년	3.881	+1.5bp
VIX	16.90	-1.74%	국고채 10년	4.015	+2bp
러셀 2000	1,784.24	+0.44%	미국 국채 2년	5.125	+1.5bp
필라. 반도체	3,389.46	+0.72%	미국 국채 10년	4.533	+10bp
다우 운송	15,101.42	+0.76%	미국 국채 30년	4.652	+12.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67.37	-0.95%	WTI	89.84	+0.18%
MSCI 전세계 지수	662.62	-0.08%	브렌트유	93.29	+0.02%
MSCI DM 지수	2,879.79	+0%	금	1935.1	-0.08%
MSCI EM 지수	957.41	-0.71%	은	23.15	-1.91%
MSCI 한국 ETF	60.62	-0.3%	구리	364.95	-0.4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7.4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최근 급락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가능성 2. 아마존의 주가 강세가 국내 AI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 3. 코스피 200 일선 지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9 월 FOMC 전후로 바뀐 것은 “시장의 기대감 관리에 대한 연준의 전략 변화”에 있음. 상반기 중에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상반기 증시 랠리의 동력 중 하나였음. 하지만 연준은 잇따른 매파적인 발표와 6 월 FOMC 에서 점도표 상향조정을 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킴. 이후 여름 기간 중 시장에서는 “올해 긴축 중단 및 내년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배적인 분위기로 조성되면서 주가 또한 중립 수준의 흐름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음. 그러나 연준은 9 월 FOMC 를 통해 내년까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 기대감을 차단해버렸던 상황.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가 잡히고 있다는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은 만큼, 최근처럼 시장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 다시 커질 경우 과도한 위험자산 가격 상승 및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임. 향후에도 이들은 기대감 관리에 주력할 것이기에, 주식시장은 10 년물 금리 4.5% 이상의 환경에 직면할 수 있음. 다만, 1) 10 월 이후 발표되는 지표가 경기 둔화, 인플레 하락 등 매파 스탠스를 강화시킬 만한 유인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2) 주가 측면에서 9 월 FOMC 충격을 기반형 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연준발 악재로 인해 추가적인 조정이 출현하더라도 그 형태는 급락이 아닌 기간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증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9 월 FOMC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양 시장에서 2 차전지주들이 실적우려, 수급 부담 등으로 동반 급락세를 연출함에 따라 하락 마감(코스피 -0.5%, 코스닥 -2.1%).

금일에는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낙폭과대 인식 등에 따른 매수 유인이 상존한 가운데, AI 스타트업에 대한 40 억달러 신규투자로 강세를 보인 아마존(+1.7%) 이슈 등을 반영하면서 대형주,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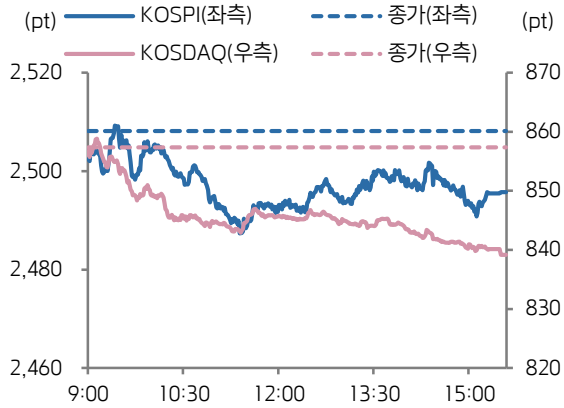
한편, 향후 국내 증시 흐름과 관련해 차트와 수급 관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존재. 먼저 차트 상으로 코스피는 전일 종가가 2,495.7pt 를 기록함에 따라 중기추세선인 120 일선(2,537pt)을 이탈했으며, 장기 추세선인 200 일선(2,495pt)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120 일선과 유사하게 지난 1 년동안 200 일선을 이탈했던 사례는 3 월 중순 SVS 사태였고, 당시 중장기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 있었던 주된 동인은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었음.

9 월 FOMC 를 거치면서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라는 새로운 과제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이 지난 3 월 사례와 차이나는 부분이긴 함. 이번에는 이른 시일 내에 추세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이 직관적으로 들 수 있음. 하지만 3 월에 비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함(3 월 코스피 PER 12.2 배 vs 현재 10.5 배). 최근 주가 조정이 과도한 성격이 있는 만큼, 현재 지수 레벨대에서 하방 지지력은 확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4 개월 연속 코스피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점은(6~9 월 누적 금액 -5.0 조원), 본격적인 셀코리아라는 일차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음. 그렇지만 순매도의 대부분이 2 차전지 업종이 포함될 철강(-5.4 조원)이나 화학(-2.2 조원)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코스피 방향성을 같이하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2.1 조원), 자동차 등 운수장비(+1.5 조원)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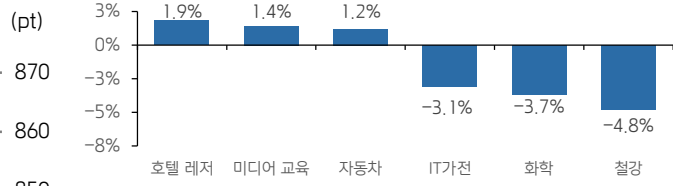
과거 외국인 셀코리아에는 후자에 해당하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전개됐지만, 현재는 그러한 셀 코리아 기조라고 보기 어려움. 또 후자의 업종은 한동안 낮아졌던 이익 전망 기대치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연후 전후로 증시 변동성 확대 시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라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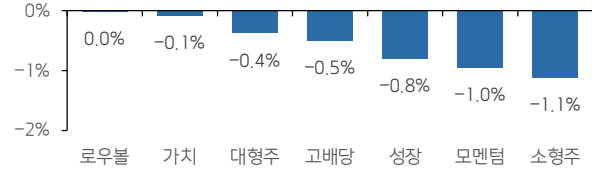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